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4 뉴욕 현대미술관

맨하튼 북관에 위치, 뉴욕커에 '문화' 입힌다

미국 다윈 미국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다윈적 다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라면, 뉴욕은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일년내내 전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드 시티' 뉴욕의 힘은 풍부한 랜드마크에서 나온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문화 인프라들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 시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뉴욕의 유명미술관들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미국 다윈 미국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다윈적 다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라면, 뉴욕은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일년내내 전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드 시티' 뉴욕의 힘은 풍부한 랜드마크에서 나온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문화 인프라들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 시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뉴욕의 유명미술관들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미국 다윈 미국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다윈적 다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라면, 뉴욕은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일년내내 전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드 시티' 뉴욕의 힘은 풍부한 랜드마크에서 나온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문화 인프라들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 시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뉴욕의 유명미술관들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미국 다윈 미국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다윈적 다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라면, 뉴욕은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일년내내 전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드 시티' 뉴욕의 힘은 풍부한 랜드마크에서 나온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문화 인프라들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 시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뉴욕의 유명미술관들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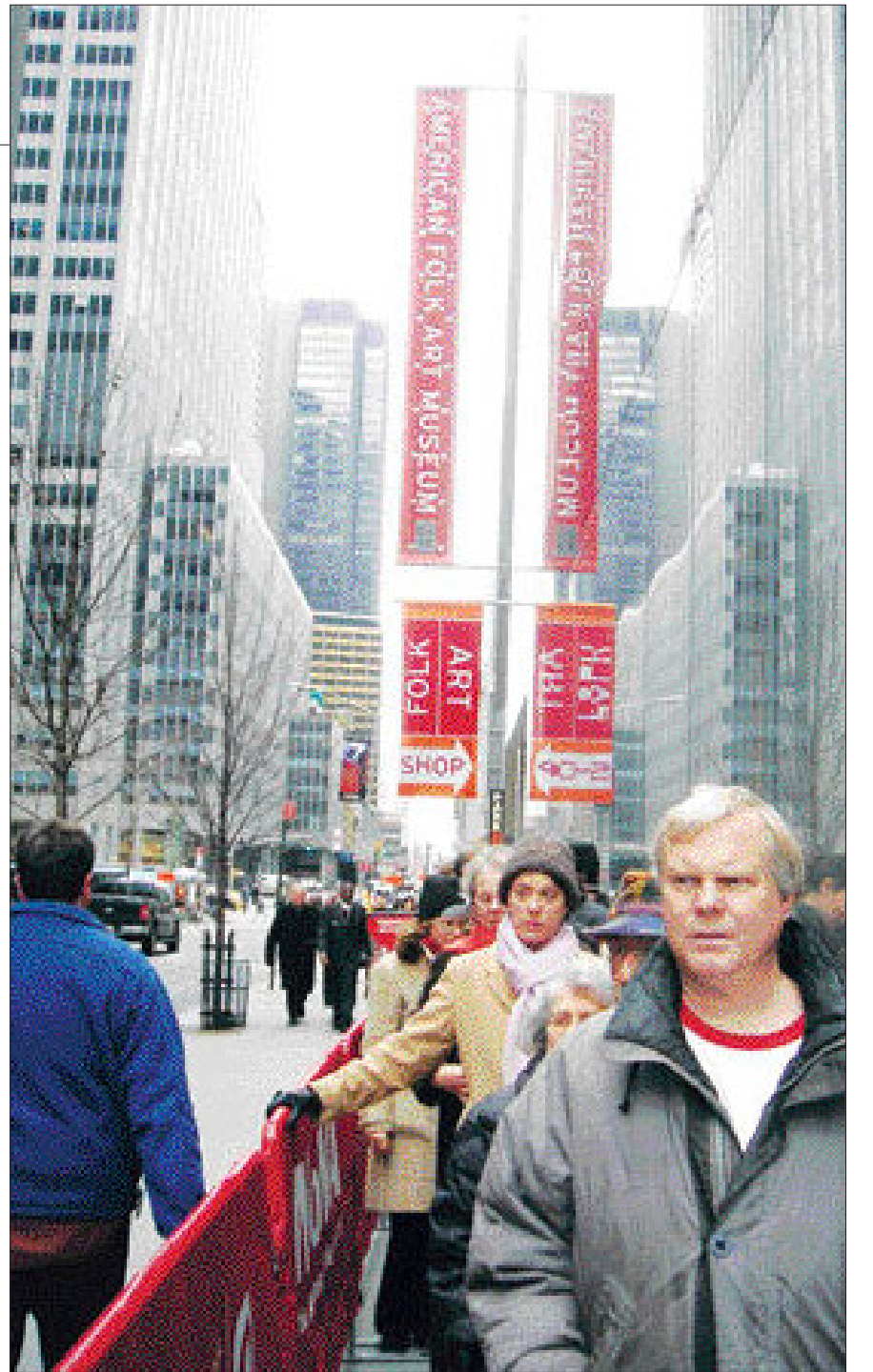
회화·조각 등 14만점 소장한 '현대미술 심장' 학생들 대상 '방과후 학교' 운영 창의성 교육 온라인 투어·영화 관람... 교육프로그램 역점

다. 하루 평균인원 6천명이었던 리모델링 이전과 달리 지금은 동시 수용 가능한원만 6천명에 이른다. 회전문을 열고 들어서면 348평의 드넓은 로비가 기다리고 있다. 천장 높이 34m의 시원한 중앙홀을 유리창 밖으로 모마의 명품인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 조각공원이 내다보인다. '미술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조각공원은 건축가 다니구치가 어느 곳보다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곳이다. 뉴욕커들이 감동하는 즐거움은 이 야외공간에는 조각가 마을의 '강'을 비롯, 로댕, 헨리

이론강의와 전시교육을 병행한다. 교육부서는 미술관과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람객이 근·현대 미술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데 주력한다. 교육부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족프로그램, 학교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등이 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포드 패밀리 프로그램'(Ford Family Program)이다. 포드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의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미술관

미국 다윈 미국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다윈적 다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라면, 뉴욕은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일년내내 전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드 시티' 뉴욕의 힘은 풍부한 랜드마크에서 나온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문화 인프라들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 시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뉴욕의 유명미술관들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미국 다윈 미국을 보려면 뉴욕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다윈적 다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D.C가 미국의 행정수도라면, 뉴욕은 미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일년내내 전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드 시티' 뉴욕의 힘은 풍부한 랜드마크에서 나온다.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 폴리탄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휘트니 미술관 등 수십여개의 문화 인프라들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광주 시립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달리, 뉴욕의 유명미술관들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 뉴욕 맨하튼 53번가에 위치한 뉴욕 현대미술관(MoMA) 정문에서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다. ▼ '포드가족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미술관 에듀케이터 벤 스트리트(맨 오른쪽)로부터 앙리 루소의 '집지는 집사'(1897년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욕현대미술관 제공>

고흐·피카소·마티스...책에서나 만날 법한 걸작들 즐비

■ '모마'의 소장품들 피카소 작 '아비뇽의 처녀들'

모마가 세계의 미술관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질적, 양적 우위의 콜렉션이다. 모마의 소장품 하나하나가 현대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걸작들로 넘쳐난다. 이 때문에 모마의 소장품들은 곧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하다. 창설 초기 세간의 '수영하는 사람'과 고갱의 '달과 지구' 등으로 출발했던 모마는 2차대전 무렵 후원자들의 기증에 힘입어 소장품 리스트를 꾸준히 늘려왔다. 모마의 도약기는 2차대전 무렵. 당시 나치가 국가 소장품 중 퇴폐적이라고 지목한 작품을 매각한 데다 예술가와 소장자들이 나치의 박해와 전쟁을 피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한

시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미술관의 전시장은 교과서나 도록에서나 만날 법한 명작들이 걸려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비롯 쥘 세잔의 '수영하는 사람',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오귀스트 로댕의 '발차크',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사', 앙리 마티스의 '춤',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저녁, 옹골레르', 폴 고갱의 '아레오이 의 씨',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집착', 구스타프 클림트의 '희망 II' 등 근·현대 유럽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여기에 마르셀 뒤샹의 '자전거 바퀴'에서부터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공을 잡은



반 고흐 작 '별이 빛나는 밤' 소녀', 제스퍼 존스의 '깃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등 20세기 현대미술사를 바꾼 거장들의 작품도 소장돼 있다. 이와함께 초기 무성영화인 에드윈 포터의 '대형차 강도'에서부터 클로드 로이즈의 '용서받지 못한 자'에 이르기까지 영화사에 족적을 남긴 걸작들도 만날 수 있다. <박진희기자 jh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property listings. Each column includes a title (e.g., '대인동삼일부동산', '정우부동산랜드'), contact information (phone numbers), and details about various properties such as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The listings are organized into categories like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 '빛고을리드공인중개사',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무등공인중개사', and '알파공인중개사'.